

위기에 변화하는 러시아



▲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모스크바)

출처 : <https://coronavirus-tracking.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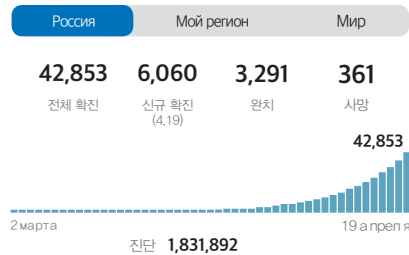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이슈

3월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러시아 모든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기업과 재계는 산업의 위축과 불가피한 재정적 손실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나 러시아에서는 유가 하락과 그로 인한 루블화 환율 하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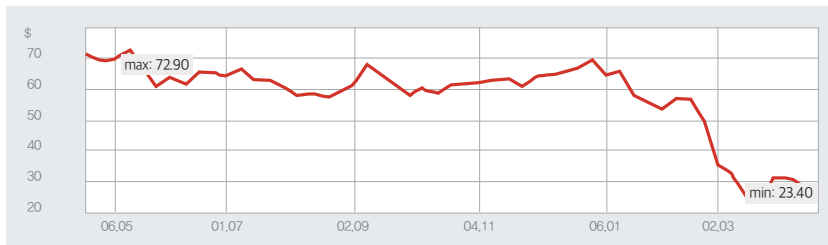
루블화의 가치가 하락(평가절하)하게 되면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오는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애써 원료를 들여와 국내시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얻는 수익이 없어진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및 3월 초 있었던 OPEC+의 감산 합의 실패로 인해 러시아는 코로나와 유가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었다.

[러시아 코로나19 확진 동향 (4.1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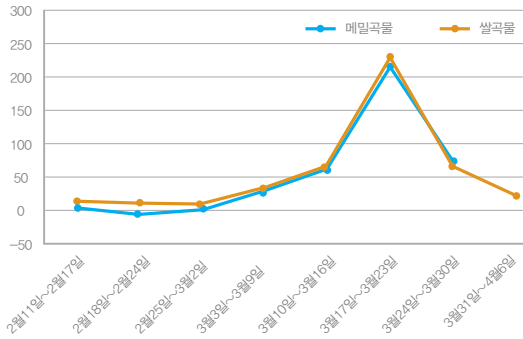


[국제 브렌트(BRENT)유 시세 (4.20 기준)]

Time	Last	Chg	Chg%	Open	High	Low
20.04.2020 04:30:00	27.95	+0.06	+0.22%	27.89	28.21	26.95



[주요 곡물 수요 상승 (%)]



루블/달러 환율 동향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2020.1월 말) 61.81 → (2월) 63.98 → (3.15) 73.1882 → (3.31) 77.7325 → (4.10) 74.6050 → (4.18) 73.9441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0년 3월 28일부터 국내에 도입한 '자가격리 제도'로 인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추가되었다. '자가격리 제도' 기간은 대부분의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이 비상업무가 없을 시 휴무로 지정하고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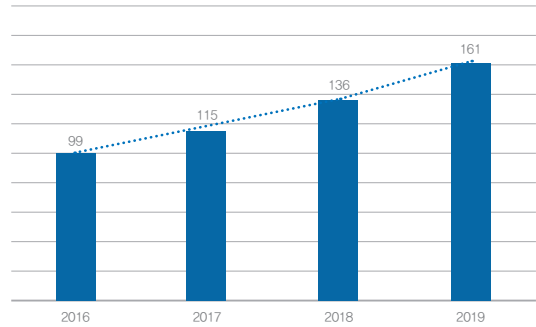
금융전문가들은 자가격리 제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도는 물론 연말까지 실업자 수가 8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민간부문 근로자 11분의 1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 모든 변화는 구매력 저하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일반적인 가족은 구매에 3,376루블을 소비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인들의 지출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904루블 (21.1%의 점유율)이 줄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출처 : <https://sfera.fm/news/v-strane/rossiyane-sokratili-svoi-raskhody-v-dva-raza>

[러시아 온라인 음식주문 시장의 성장 (10억 RUB)]



소비자 구매 동향

러시아 소비자 구매 트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경기 침체로 인해 곡물 등 필수식품 구매 증가, 건강식품 관심, 온라인 소비 증가 등 3가지 트렌드로 나뉘고 있다.

첫번째로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러시아 내 구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식품군은 우선 곡물, 마카로니, 통조림제품을 뽑을 수 있다. 이 중 필수식품인 곡물은 최근 수요가 높은 식품군 중 하나로 러시아에서 주로 소비되는 곡물류는 쌀, 메밀, 귀리, 밀, 보리 등이다. Nielsen 연구센터에 따르면, 3월 초에 곡물류 판매량이 27.8% 급증했다고 한다. X5 Retail Group (체인형 하이퍼마켓: Pyatyorochka, Perekryostok, Karusel')은 이미 공급자들에 의해 곡물 가격이 평균 5%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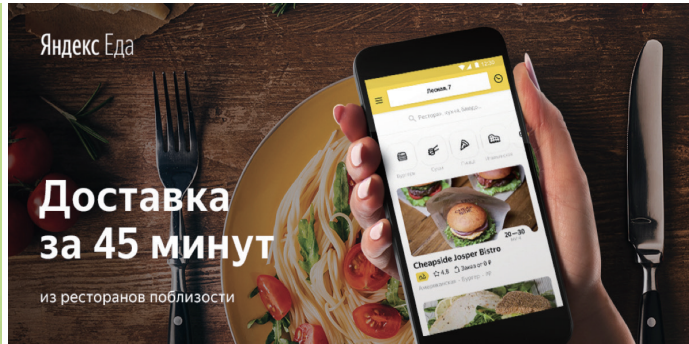
1년 내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곡물과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야채와 과일에 대한 수요는 30% 감소했다. 신선도매의 주요 소비자인 카페와 음식점의 폐업뿐만 아니라 별도의 패키지로 된 상품이 부족한 것도 감소의 원인이라고



출처 : <https://sfera.fm/news/v-strane/spros-na-ovoshchi-i-frukty-v-rossii-rezko-upal>



▲ 음식 주문 app. Delivery Club



▲ 음식 주문 app. Yandex eda

말하고 있다.

두번째로 신선제품에 대한 수요는 줄었지만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 카테고리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주 4월 6일부터 12일까지 많은 지역 소매점들은 생강, 마늘, 레몬의 3가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극동지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강 53.1%, 레몬 72.2%, 마늘 58.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외 유익성, 충동구매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는 풍선껌(2019년 같은 주 대비와 비교해 -45%), 초콜릿 바(-21%), 캔디(-24%) 등의 구매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제품들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던 제품군이나 이후 필수식품 위주로 지출하는 소비패턴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로 온라인 식품 소비의 증가이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장시간을 자가격리 기간으로 지정한 만큼 온라인을 통한 구매 행태 증가는 당연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월 중순 이후 러시아 소비자 구매 활동은 특히 FMCG(일용소비재)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4월 첫 주 온라인 비즈니스 분석 결과 온라인 식품배송(58%), 음식주문(78%), 유료TV(93%), 비디오 콘텐츠(64%) 등 자가격리 관련 소비 카테고리에서 증가세가 확연하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온라인 식품구매와 함께 음식배달 시장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대면접촉을 줄이고 간편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음식배달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음식배달을 이용하지 않았던 소비자들도 온라인 서비스의 편리함과 비대면 서비스의 위생적 안전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의 신규 고객 증가율은 2019년 대비 약 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Key Point

이렇듯 코로나와 저유가 국면은 러시아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행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저유가로 인해 낮아진 소비구매력은 우리 식품 수출에 악영향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모든 수입식품에 동일하게 영향을 끼쳐 우리에게만 불리한 요소는 아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현재는 음식주문이 식품구매보다 앞서고 있다고 판단되나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식품구매가 소비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온라인 식품시장으로의 빠른 관심과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❶ <https://www.kommersant.ru/doc/4298421> ❷ <https://sfera.fm/news/v-strane/rossiyane-sokratili-svoi-raskhody-v-dva-raza> ❸ <https://russian.rt.com/business/article/737042-rossiya-zerno-ceny> ❹ <https://www.nielsen.com/ru/ru/insights/article/2020/mir-posle-covid-19-5-trendov-potrebleniya/> ❺ <https://www.kommersant.ru/doc/4298610> ❻ <https://www.agroinvestor.ru/markets/news/33559-optovye-tseny-na-grechku-rezko-vyrosli/> ❼ <https://www.agroinvestor.ru/markets/news/33558-v-marte-svinina-i-myaso-ptitsy-podorozhali-na-fone-azhiotazhnogo-sprosa/> ❽ <https://www.nielsen.com/ru/ru/insights/article/2020/covid-19-pokupki-v-karantine/>